

# 주님 수난 성지주일 복음 나누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루카 23,47)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루카 23,38-47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 40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 42 그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44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 46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 47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 성경해설 >

복음 말씀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영어로는

‘Passion Sunday’라고 합니다. Passion은 고통이란 뜻보다 ‘열정’이란 뜻이 더 우위입니다. 인간 사랑에 대한 열정이 수난이 된 것이니,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금요일’은 슬픈 금요일이 아니라 ‘Good Friday’인 것이 마땅합니다. 온 인류를 새로이 낳고 키우기 위해 하느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사랑의 절정, 거룩한 주간의 시작입니다.(야곱의 우물 4월호, 정 세라피아 수녀님)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의 안일한 삶의 태도와 법에 얽매어,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데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질투와 미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참된 의미는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곧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완성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느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숨져가는 예수님을 보고 단 한 사람 백인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루카 23,47) 그는 자신이 휘두른 무력과 폭력 앞에 벌레처럼 짓밟히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못 박힌 채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폭력 앞에 속수무책인 처절한 패자, 짓밟힌 예수님 안에서 그는 하느님의 무능과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무력함과 무능함이야말로 결국에는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1코린 1,22-24)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희망했던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 뵈기란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천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의 행위를 판단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이웃 안에 하느님께서서는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판단과 질투와 미움을 무덤에 묻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미움을 묻고, 질투를 묻고, 판단을 묻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활시켜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새로운 탄생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Good everyday’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용감하게 고백한 순간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

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